

[개꿀팁] 내가 수험생이라면 이것부터 한다.

안녕하세요

오르비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서성수입니다.

‘국어는 독해력이야’라는 선배들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국어의 핵심인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적 독해와 추론적 독해가 잘 정리되어야 해요.

구체적으로

글안에서

정보와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자신의 말로 요약해보는

사실적 독해와

글과 함께

배경지식 등을 이용해 숨겨진 내용을 찾고 다양하게 이해한 뒤 예측하는
추론적 이해 둘 다 잘해야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어요.

쉽게 정리하자면

**‘세부 정보, 주제, 구조, 배경지식을 통한 이해, 정보의 인과 관계를 중심으로
한 예측’**

이 5인방을 정복해야 하는 데 과연 .무엇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제 수업을 들으...~~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사실적 독해예요.

특히 구조 파악보다는

글 안에서 세부정보를 파악하고 글의 주제를 찾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은 이 세부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어려운 용어, 많은 정보, 복잡한 관계 그리고 유사한 말들의 반복은

세부 정보 처리를 어렵게 하는 배경이에요.

특히 이 중에서 유사한 말들의 반복은
반복 독해와 잘못된 내용 일치를 만드는 주범이에요.

대표적으로 천재교육 고전에 등장하는 ‘엘리아데의 성과 속’을 확인해봅시다.

이에 반하여 종교적 인간에게 있어서 속된 시간 지속은 주기적으로 정지된다. 왜냐하면 어떤 의례는 (역사적 현실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비역사적인 성스러운 시간의 주기에 의해서 그것을 중단시키는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 교회가 근대 도시의 속된 공간에서의 지평의 단절을 나타내는 것과 똑같이 그 내부에서 행해지는 예배는 속된 시간 지속의 단절을 표시한다. 더 이상 오늘의 역사적 시간- 가령 이웃한 거리에서 경험되는 시간-이 '현존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현존의 시간, 그의 설교, 그의 수난, 그의 죽음과 부활에 의하여 성화된 시간이 존재한다.

'현존= 현실에 존재하고 '생성'되는 것(구체적 내용은 이후 정리)

어느 특정한 나무가 불에 타고 있을 때 그 나무가 현존자이고 그렇게 불타면서 생성을 겪고 있음이 바로 현존이다. 말하자면 현존 상태는 본질이 바뀌고 있는 상태인 반면, 본질은 자기 동일성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데서 성립한다.

이 글의 주제는 ‘종교적 인간이 겪는 속된 시간의 주기적 정지’가 될 것입니다. 글에 따르면 속된 시간은 의례에 의해 재현되는 비역사적인 성스러운 시간이 속된 시간 중간 중간 개입됨으로써 중단됩니다. 이런 속된 시간의 단절은 예배 등의 형태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는 더 이상 오늘의 역사적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역사적 현존의 시간, 그의 삶을 통해 성화된 시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독해하다 보면 ‘오늘의 역사적 시간이라는 개념’과 ‘그리스도의 역사적 현존의 시간이라는 개념’ 그리고 ‘비역사적인 성스러운 시간의 주기’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의 역사적 시간의 현존과 그리스도의 역사적 현존의 시간이 거의 같은 서술인데 같다고 봐야하는 것은 아닐까?’

‘비역사적 성스러운 시간의 주기가 그리스도의 역사적 현존으로 연결되는 데

비역사적과 역사적이 같다는 것인가?’

미리 결론을 이야기 하자면 이렇게 유사한 용어가 반복되어 있으면 조금만 달라도 다른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 쉬지 않고 쪽 연결해서 읽다보면 오독이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우선 용어가 헛갈리기 시작하면 시간을 5초 정도 더 사용해서 끊어가면서 글을 읽어요. 비역사적 성스러운 시간은 성스러운 시간대로 오늘날의 역사적 시간의 현존은 그것대로 또 그리스도교의 역사적 현존의 시간은 이것대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이를 적용해 보면 비역사적 시간으로 인한 속된 시간의 중단은 ‘오늘 날의 역사적 시간의 현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역사적 현존의 시간’으로 ‘연결’된다고 파악하면 돼요.

‘오늘 날의 역사적 시간의 현존’과 ‘그리스도의 역사적 현존’은 다른 개념이라는 점은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비역사적 시간’ 과 ‘그리스도의 역사적 현존의 시간’을 같은 개념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에요.

‘비역사적 시간= 역사적 시간’ 같은 생각은 하지 말고 다르지만 연관된(related) 개념이라고 생각해줍시다.

실제 비역사적 시간은 고대의 신 개념에 기반 한 것으로 이때 신성과 인성은 명확하게 구분돼요. 인간이 사는 역사적 시간이 경험에 기반 한 현실인 반면 근원적 시간, 처음의 시간, 그리고 창조와 성화의 시간인 비역사적 시간은 경험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아요. 이 같은 시간은 천지 창조 이전에 신만이 존재 했던 시간이자 신의 창조 행위가 일어나는 시간으로 성스러운 시간이며 이전에는 어떤 역사적 시간도 실제로 존재할 수 없어요. 인간은 예배 같은 의례를 통해 ‘재현’되는 이 근원적 시간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 그리스도의 역사적 현존의 시간은 신성을 지닌다는 측면에서 성스러운 시간이지만 동시에 인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비역사적 시간과 구분돼요. 비역사적인 시간이 원초적인 시간이자 신의 시간으로 인간과 완전히 분

리되는 시간이라면 그리스도의 역사적 현존의 시간은 인간의 역사성 안에 성스러움과 신성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역사성을 긍정하면서 이전의 성스러운 시간과는 다른 개념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전의 신들이 신화 속에만 존재하는 존재이고 이들의 시간은 근원적 시간이지만 그리스도의 역사적 현존은 인간의 역사 안에 신이 실제 존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기독교적 용어로 수육으로 표현되고 인격의 긍정을 바탕으로 신적인 존재가 인간 가운데 거함을 나타내요.

실제 수능 글에서는 이 같은 용어의 차이는 문단을 통해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돼요. 만약 한 문단에서는 소송을 이야기 하고 다른 한 문단에서는 상소를 이야기할 때 비록 두 개념이 유사한 개념이더라도 완벽하게 구분해서 내용 일치 해줄 수 있어야 해요. 이때도 굳이 문단들을 연결해가면서 이해하기 보다는 문단별로 끊어서 각자 독해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용어가 비슷하다고 느끼면 무조건 구분하기!

특히 문단이 다르다면 더욱 구분하기

시간을 5초 이상 더 사용해 끊어서 독해하고

모든 개념은 같은 것이 아니라 연관된 개념(related)으로 인식하기!

꼭 기억해줘요.

다음에는 ‘천재교육 고전- 정의론’을 기반으로

복잡하게 느껴지는 세부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정리해봅시다.

자료는 내신을 위해서 자습서를 정리해둔 내용이니 암기해요.

추천은 사랑!